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찬양예배와 수요일예배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 삶에 우선 되도록 -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교회의 첫번째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전도나 선교와 같은 중요한 일보다도 먼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야 한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산제사(롬 12:1)가 되어야 함은 물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공예배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예배란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등 모든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별히 주일 저녁의 찬양예배는 30분 전부터 모여 찬양을 드리고 낮 예배에서 할 수 없었던 성도의 교제를 위한 순서 등을 진행하기면서 성도의 연합된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드리는 수



일하게 세워 나가는 일인데 그 첫째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다.

영으로 드리는 경배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드리는 총체적인 찬양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경배는 그리스도의 몸을 경건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찬

양예배는 말씀에 비추어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현재 우리교회는 수요일에 창세기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주일 저녁의 찬양예배와 수요일의 예배는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에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배당을 짓는 일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충

양에 영감을 주시고 우리 영과 마음을 여시며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고, 의무적인 것이 아닌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4:23).

▶ 절제운동에 부처

그리스도인과 절제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유혹이 교묘하게 우리를 현혹시킨다. 어떤 사람은 절제라는 말이 주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어감에 집착하여 애써 절제라는 말에 대해 외면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절제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강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의 생애동안 절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기도 했던 것이다.

구약성경에서는 절제를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잠언 25장28절에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 16장 32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는 말씀이 나온다. 자기의 영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을 성벽이 무너져 적의 공격에 쉽게 파괴되어 버리는 폐허화된 성읍에 빗대고 있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이 절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세가지 덕목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것, 9장 25절에 달리기 선수가 승리를 얻기 위해 행하는 연습의 일부로 육체적인 욕망의 억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속하

는 덕목 중 하나로 절제를 들고 있다.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오로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의 의미를 더욱 더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완전히 도달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절제운동의 역사는 개신교의 선교와 함께 시작되고 있다.

선교초기인 조선 말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 사회를 피폐시키는 주요인이 술, 담배, 도박, 축첩 등이었음을 파악하고 새로 입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이라도 이를 금하도록 권면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회의 신앙형태가 경건을 중심으로한 청교도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것도 절제운동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창세기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인가?

(21장 8 ~ 21절)

이종운 목사

인간 세상은 죄로 가득차 있습니다. 죄의 기원은 아담의 교만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자처럼 되려고 한 잘못된 마음 때문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죄는 가인에게서 나타나는데 시기와 질투로 인해 범한 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민의 아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86세 때 아내의 권유를 따라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결국 100세가 되어 약속한 아들을 얻었으나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생기는 갈등으로 아브라함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4살이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어 쫓긴다면, 그들의 미래는 아무런 보장이 없고 생명에는 위협이 닥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요청대로 그들을 내어 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1. 무엇을 믿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을 초래할지도 모르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라의 권유에 의해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갈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2절). 만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서 그 중 하나를 바치는 것이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었겠지만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서 떼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없는 상태에서 이삭마저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의 일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는 것이 17장에 나오니 그의 의

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할례로 인한 것도 아니고, 사백 삼십년 후 모세에게 주어질 율법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엇으로 낳았나?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다를 뿐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은 종으로 태어났고 이삭은 자유자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갈3 ~ 4장). ‘누가 유대인인가?’ 라는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낳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신으로 낳은 사람입니까? 영이 새로와지지 아니하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는 체험이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3. 무엇으로 사는가?

아브라함은 삶의 최우선권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두었습니다. 사람의 말 가운데에서도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기로에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정이나 자기 판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산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최우선권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 같으며,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천국시민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서 천국시민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대접받을 줄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혹 물질의 부요함이나 지식적인 탁월함을 가졌다면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번째 사람이 와서 아버지 장례식을 끝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로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라져버릴 것에 너무 집착하여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세번째 사람이 와서 주님을 따르되 집에 가서 작별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을 좇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컬럼 ✦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천국의 논리는 이해되지만 인간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는 많이 있다. 가령 오전 9시부터 일을 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찾아 온 일꾼에게 주인은 구별없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비유만 보아도 공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이 된다는 결론의 말씀까지 주셨다.

물론 이 비유에서 주인되신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주인과 일꾼 사이의 계약은 지켜졌기 때문에 늦게 온 이에게 일찍부터 일한 이와 같은 노임을 주었다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적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채무자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시간의 선후가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를 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무 극적(劇的)이셔”

나 소 연 (대학부)

지난 주일에 서울교회의 장학금을 받았다.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번 장학금은 큰 의미가 있었다. 단순한(?) 장학금으로서만이 아닌 하나님과 나의 '겨울여행 최종 결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나는 '겨울여행'을 준비해왔다. 가진 돈 전부, 그리고 과외로 번 돈 전부를 투자한 여행이었다.

그 때 나는 반복되는 일상에 묻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려 했었다. 내 삶의 주인이 시기보다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했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생활까지도 너무나 메말라 있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추락의 공포를 느껴야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붙들었다.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는 이 하나 없는 호주로 날 인도하셨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셨다. 기도하며 준비했던 여행 예산은 떠나기 하루 전에 정확하게 채워졌고, 여행의 마지막 날 내 지갑에는 단 1센트의 동전 하나도 남지 않았다.

빈 손으로 돌아온 나를 기다리고 있던 등록

금 고지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많은 액수가 부족했다. 그런데 내가 서울에 없는 동안 부모님께서 신청하셔서 교회의 장학금을 받고 보니 정확하게 등록금 액수가 채워졌다.

이번 여행의 최종 결산을 하며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며 생활에 세세한 부분까지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사랑 가득한 서울교회의 일원이 된 것도 감사드린다.

선배의 말을 떠올려 본다.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 우리 하나님은 참 극적이셔.”



① “아멘”

아멘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의 뜻이다. 이 말은 받는 상대가 하나님 또는 삼위 중 한분일 때 붙이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이 말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엄정하게 확정하는 경우에 말의 첫 머리에 사용하기도 했고 (왕상1:36, 렘28:6), 서약하는 말을 응락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민5:22, 느5:13). 예배용어로서는 기도와 축도 끝에 회중이 이에 화답하는 데 사용한다(대상 16:36, 시106:48, 느8:6).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사용한다(롬1:25, 16:27).

② “할렐루야”는 만국공통어

구약에서 '찬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50가지가 넘는다. 그 중 99번이나 쓰인 '찬양'의 대표적인 어휘가 '할랄(Halal)'로 '뽐내다' '사랑하다' '칭찬하다' '어리석을 정도로 자랑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는 영어로 '할렐루야'로 번역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정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발생적인 외침이며 경탄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합창곡 중에 유명한 '할렐루야'가 있다. 초기 연주 때에 이 곡에서 절정을 이루자 청중석에 앉아 있던 왕이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왕이 일어나니 청중들이 함께 일어났다. 지금도 헨델의 할렐루야가 연주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전통에 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는 세계 어느 언어로도 '할렐루야'로 발음된다. 이러한 식의 번역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할렐루야'는 어쩌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같은 의미의 발음으로 된 어휘일런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나 한 목소리, 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까.

예배 언어, 다시 생각해보자

■...예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배에 자주 사용하는 '아멘' '할렐루야'의 뜻과 간혹 예배의 대상과 목적을 잊고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드러야 할 예배에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본다. ...■

③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기도할 때에 흔히 쓰는 이 한마디에 세가지의 오류가 있다. 첫째, '당신'이라는 표현은 상대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2인칭일 때 높임말이 아니다.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을 가리켜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어

법에 맞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목사님'이라는 호칭이다.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는 아버님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목사 또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해야 옳다.

셋째, '축복'이란 '복을 빈다'는 뜻인데 마치 '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께 복을 빌어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다.

④ 목적어와 목적격 조사의 사용

우리 말의 명사나 수사, 대명사에 붙는 목적격 조사 '을(를)'이나 '에게'는 관계를 명시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에서 '찬양' '예배' '기도' '감사' 등의 말을 사용할 때에 흔히들 '누구에게'라는 목적어와 목적격 조사가 빠져 있다. 너무 당연해서 생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런 말들을 자주 생략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잊게 되지는 않을런지. 목적어와 목적격 조사 사용에 인색하지 말자.

예배에 있어서 찬송은 순수하게 찬송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찬송하자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라고 목적어를 붙이는 것이다. 인간이 누리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체인 것이다.

- 이의용 저 <잃어버린 찬양을 찾아서> 중 -

바울 사도의 첫번째 서신 데살로니가서 강해 시작

- 오늘 찬양예배 시 -

오늘 찬양예배 때부터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한다.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사랑 가득한 편지를 매주 일 찬양예배 시에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교회, 데살로니가전후서

BC 4세기에 건립된 데살로니가는 AD 49년 혹은 50년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유구한 역사를 지닌 안정된 도시였다. 이 도시는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도시이며, 데살로니키(Thessaloniki)라고 불리운다.

데살로니가는 예루살렘 회의 직후에 있었던 바울의 제 2차 선교여행 동안에 복음화되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인구는 회당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만큼 많은 수였으며 이 회당에서 바울은 세번의 안식일에 걸쳐 설교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야로서의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이었으며 그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증거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후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① 회상과 감사, ② 권면과 재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과 사도의 가르침, 교회와 복음의 상호관계 등을 볼 수 있다.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안내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 제6차 킷치 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⑤

방글라데시



■ 면적 - 144,000Km² ■ 인구 - 132,219,000명

■ 공용어 - 벵갈어 ■ 수도 - 다카

■ 경제 - 세계에서 매우 가난한 나라이며 인구 과잉에 무서운 홍수, 인명을 앗아갈 정도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거의 없다. 1인당 외채 \$81. 1인당 국민소득 \$180(미국의 0.85%)

■ 정치 - 1971년에 독립. 그후 18번의 쿠데타로 여러 해를 허비하며 불안정하였다. 9년간의 군부독재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배금지아가 이끄는 정부의 집권으로 1991년에 끝이 났다.

■ 종교 - 1971년에서 1988년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으나 그후에 정부가 회교를 국교로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회교도들과 다른 종교 신자들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회교가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힌두교 11.7%, 불교 0.6%, 개신교 0.23% 이다.

■ 선교사 -

방글라데시 사역 선교사 - 50개 단체의 316명 (1:366,000명)

방글라데시 파송 선교사 - 127명 (1:1,700명)

① 방글라데시는 복음전파가 매우 어려운 나라였다. 1971년 내전 시 회교의 이름 아래 자행된 파키스탄의 자학한 탄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회교에 대한 방글라데시인들의 충성심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복음 증거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종교 예식과 전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재의 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그리고 지도자들이 많은 문제를 다룰 때 성실함, 책임감, 공정함을 갖도록 기도하자. 무엇보다도 어두움의 권세가 깨어지도록 기도하자.

② 방글라데시의 자연재해에 대해 기독교의 원조는 공평하고도 넉넉하게 이루어져 왔다. 원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모금과 일꾼의 파견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잘 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이러한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혜와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어서 잘못 이용되거나 의외심을 키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③ 가난, 높은 문맹률, 지도력의 부족으로 기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④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방송, 영화, 카세트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매체가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도하자.

· 교우동정 ·

· 백수남 · 김영희 집사 가정(5교구 평촌 다락방)은 평촌 현대아파트 상가 내에 제과점 「모짜르트」를 개업하고 6일(월)에 예배를 드렸다.

「모짜르트 제과점 ☎ 0343-87-1617」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몸을 하나님이기때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
2. 그리스도인답게 절제하는 생활
3.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준비를 위하여
4. 제 6차 킷치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5.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